“살고 싶은 전북 만들 것”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지역균형발전 공약 발표

인구증가·유입 종합대책 마련,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확대 등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11일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송하진 전북지사 후보는 공약 자료집을 내고 “다르지만 고르게 발전하는 전북, 어디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다”며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살고 싶은 전북을 건설하기위한 10개의 세부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조례제·개·폐 청구제도 활성화 ▲인구증가 및 인구유입 종합대책 마련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확대 ▲지·덕·섬 휴양벨트 구축 ▲인재육성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여건 조성 ▲마을회관과 경로당 활용한 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이다.

또 남원과 완주·진안·무주 등 8개 시군에 예산을 투입해 출산분만 의료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창출을 위해 지역수요맞춤 경관조성사업도 펼친다.

아울러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계획이 확정된만큼 대학 규모와 기능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현대중공업·GM군산공장 신성장 동력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은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를 더욱 더 성숙시켜야 하고 이 힘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특히 낙후된 동부권의 특화발전과 서남대 폐교, 현대중공업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왼쪽)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오른쪽)가 6·13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다.

서거석-김승환 교육감 후보 총력 유세

서거석 후보 “전북교육의 질 높일 것”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는 최근 익산역앞 사거리와 영등 등 전자랜드 사거리 두 곳에서 선거운동원, 지지세력 및 지인들과 함께 총력 유세를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서 후보는 “김승환 교육감후보는 전남 장흥태생이고 광주 동성중, 광주상고, 건국대 등을 졸업했으니 전남출신이라는 것을 전북도민과 유권자에게 알리다”며 “전북출생인 저 서거석을 지지와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서 후보는 “익산시민들이 저를 지지해주신다면 과거 전북대를 우수대학으로 만든 것처럼 직접 발로 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 전북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후보는 “▲공부 잘하는 전라북도(기초학력책임위원회설치, 한글교육책임제 실시, 대입정보센터설치, IB교육과정 고입추진)▲전북형 미래학교 운영(4차 혁명/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전북형미래학교 및 생태유아교육 활성화, 노동인권팀 신설, 여학생화장실 파우더룸설치, 청소연 문화카페 조성, 도내대학과 연계한 직업체험관 설립)▲도민 모두가 교육감이 되는 시대(교육협력정부 구성, 공약추진 주민참여단 운영, 불만민원 전담관리시스템 도입, 사학지원팀 설치로 사립학교 행정지원 체제 재정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지원 강화)▲제도의 일대 혁신을 통해 맘(mom)이 편한 학교(학생안전복지과신설, 학교주변 안전지원 협의체 구성, 교실내 미세먼지 저감대책강화/라돈 발생학교 안전대책 시행,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을 공약했다”고 발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승환 후보 “중단없는 교육개혁 위해 뛸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가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48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했다.

이번 총력유세는 도민들에게 김승환의 교육정책을 알리고, 중단없는 교육개혁을 위해 다시 한번 김승환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함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역 앞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유세차 연설은 물론 그룹별 간담회, 상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만났다.

또 이날 오후 6~8시까지는 JTV전주방송이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 전 마지막 TV토론회로 김승환 후보는 그동안 전북교육정책의 성과와 앞으로 4년 전북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전북대 앞 상가 등 상대적으로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거리 유세를 비롯해 유권자 일대일 접촉 등 쉼없는 소통행보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김승환 교육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교육혁신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열망들을 가지고 계셨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끝까지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희망의 꽃 피우겠다”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일자리 공약 발표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가 전주를 희망찬 일자리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도 끌어올리겠다는 일자리분야의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김승수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6기 지난 4년 동안 사람과 생태, 문화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에는 경제와 일자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시민들의 희망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우선 전주시의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관·학이 연계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일자리 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청년창업지원 및 4차산업 연계 IT 융복합 일자리 ▲문화재생 등 지역공동체형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스마트 제조업 일자리 ▲스마트팜, 식품, 반려생명 관련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분야 공약과 정책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힘 있는 재선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찬란한 전주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후보자 전과기록 누락 등 선거법위반행위 급증

어제 하루동안 3건 고발,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행위 늘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인 미성년자 4명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2명에게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11일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덕진구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4명에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각 20만원씩 총 80만원의 현금을 제공, 선거사무원 2명에게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26만원 초과하여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임실군선관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계약직)에게 임실군수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D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순창군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상황 및 세금납부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745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로 순창군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E씨를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이로써 6월 11일 하루에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수만 모두 3건으로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살펴보고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오늘 도시재생 뉴딜사업 맞춤형 컨설팅

전북도는 7월 공모계획인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선정율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일 시군 도시재생 담당자를 대상으로 뉴딜사업의 준비사항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실무 위주의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를 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시되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설명회의 후속조치로, 사업 유형별 세부설명과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위주로 설명회가 진행 된다.

또한 설명자로 초청된 도시재생 지원기구(LH연구원)에서는 사업구상서 작성과 주의사항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수립 방안 등 시군 담당자들이 뉴딜사업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다.

전북도는 시군에서 공모 준비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유형이 특정유형에 편중되어 내부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유형별로 공모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당부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여부가 사업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양은 냄비처럼 얼른 끓어오르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뚝배기처럼 천천히 하지만 오래도록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동향

“활기찬 주거공간 조성할 것”

전상두 임실군수 후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상두 전북 임실군수 후보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약했다.

전 후보는 11일 임실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활기찬 주거공간을 재탄생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추진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시장 개선, 노인청소년 문화서비스 공간 설치, 빈 점포 리모델링 등이다.

특히 오수면에 주택공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협의해 젊은이와 노인을 위한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 후보는 “지금의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임실군 발전에 위해 좋은 정책을 꼭 실현시키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어르신·사회적 약자 우선”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11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부안지역은 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정도로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군정의 우선순위를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후보는 특히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는 물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안심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억원을 들여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고,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권 후보는 “어르신이 일궈 놓은 부안을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병들고 아픈 어르신과 힘없는 장애인 등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책·자질로 평가받을 것”

김종규 부안군수 후보

무소속으로 부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김종규 후보는 부안읍 표심잡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는 부안읍 시장 상가를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후보가 부안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는지 검증하고 투표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정당 뒤에 숨어서 “국회의원 누구누구를 잘 아니 그들이 예산을 따오는데 협조할 것이다. 라는 말만 강조하는 후보, 집권 여당의 후보인 점만 부각시키는 후보는 이미 군수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반증” 이라며 “예산은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주는 것이지 인맥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TV토론을 보신 분들은 어느 후보가 자질 있고 검증된 후보인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것이다” 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군민화합 선거운도 펼칠 터”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는 11일 “혼탁한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남은 선거기간 혼탁선거에 식상한 군민들을 위로하며 준비된 군수의 면모를 보여주는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판세를 주도하며 상대 후보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며, 선거 이후 군민화합을 위해 후보 자신의 역량과 철학을 알리는게 더 필요하다는 고심에서 나온 발언이다.

또 상대방 비방에 집중하는 선거운동이 의식있는 유권자로부터 외면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비방이 최고조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수후보의 한사람으로 군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상대후보의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 않고 잘 준비된 공약알리기에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은시간 올빼미 투어 집중”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

장수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김창수 후보가 선거운동과 함께 시작한 ‘희망콘서트’가 지난 9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희망콘서트를 성공적을 마친 김창수 후보는, ‘남은 72시간 잠들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올빼미 투어를 하고 있다.

늦은 밤에 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은 물론, 24시간 편의점, 새벽 3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집결소와 밥샘 근무를 하는 병원 응급실, 파출소 지구대, 장수 IC, 식당 등을 방문하고, 또 새벽같이 일하시는 군민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과 바람들을 들으며 잠들지 않는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창수 후보는 “잠을 자지 않으면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격려 받고, 숨은 민심, 아주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고 싶다”며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 끝까지 장수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